

OBS경인TV 서울지역 역외재송신 승인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OBS경인TV 서울지역 역외재송신 승인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980
----------	-----

발의연월일 : 2010. 1. 14.

발 의 자 : 이근학·윤지상·유천호·
김소림·이상철·지정구·
김용재·조남휘 의원
(찬성자 : 3인)

주 문

- OBS 경인방송 역외재송신의 서울지역 전체에 대한 승인을 촉구 결의한다.

제안이유

- 가. 방송법 제78조제4항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당해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동시 재송신 하고자 하거나 위성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는 지상파 방송 이외의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고자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나. 구 방송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지난 2004년 7월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및 방송의 공익성 확보, 방송 매체간 위상 정립과 상호 균형 발전을 위한 공정경쟁 구도 확립, 지역방송 육성을 통한 방송의 지역성 구현을 목표로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을 통해서도 지상파 방송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방송채널정책 운용 방안(역외재송신 허용)을 추진하여 OBS의 전신인 구 i-TV에 역외재송신을 서울지역에 한해 승인함.
- 다. 그 후 2004년 12월 경영압박 등의 이유로 구 i-TV가 방송 송출 중단 사태를 맞았고, 지상파 방송의 역외재송신 승인 기준 논의가 늦춰지다

2006년 2월 구 방송위원회가 경인지역 새 민방사업자 공모를 하면서 역외재송신 사업계획을 심사에 반영한다고 밝혔고, 역외재송신 사업 계획에 높은 배점을 받은 OBS 경인방송이 민방사업자로 선정되어 2007년 12월 28일 정식 개국하였음.

라. OBS 경인방송은 자체편성 비율이 100%인 지상파방송사로서 2008년 2월 구 방송위원회로부터 서울지역 1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역외재송신을 승인 받아 재송신중이나 2008년 3월에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서울지역 나머지 1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역외재송신 승인을 받지 못해 광고수주 감소 등으로 인하여 현재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고, 개국한지 2년이 채 안되어 방송사의 존폐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임.

마. 따라서 인천광역시 의회는 구 i-TV 방송 중단 후 3년 만에 어렵게 탄생한 경인지역의 유일한 지상파방송사인 OBS 경인방송이 진정한 독립방송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일관성과 신뢰성 있는 정책을 요구하며, 현재 재송신중인 1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OBS 경인방송 역외재송신을 조속히 재승인하고, 14개 종합유선 방송사업자에 대하여도 조속히 승인할 것을 촉구함.

OBS경인TV 서울지역 역외재송신 승인촉구 결의안

지난 2004년 7월 구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제78조제4항에 근거하여 지상파방송사가 제작한 양질의 프로그램이 사장되지 않고 다른 매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창구를 허용한다는 취지로 자체 편성비율이 50%이상인 지역방송에 한해 역외재송신을 허용하는 “방송채널정책 운용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OBS의 전신인 경인방송(구 i-TV)의 역외재송신을 서울지역에 한해 승인한 바 있다.

그 후 2004년 12월 구 방송위원회는 구 i-TV에 대하여 지역적 한계와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재허가 추천을 거부하였고, 구 i-TV는 2004년 12월 31일 문을 닫았으며, 2006년 2월 경인지역의 새로운 민방사업자 공모신청을 받을 당시 구 방송위원회에는 수도권에 한해서 역외재송신을 허용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민방사업자 선정시 역외재송신 사업계획을 심사에 적극 반영한다고 밝혔고, OBS 경인방송은 역외재송신 사업계획이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민방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OBS 경인방송은 사실상 수도권 전체를 가시청 권역으로 하여 2007년 12월 28일 정식 개국하였다.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기반으로 하는 유일한 지상파 민영방송사인 OBS 경인방송은 개국 후 지역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 및 지역 매체로서의 적극적인 방송사업을 벌여 왔으나, 구 방송위원회의 동일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 받아 2008년 3월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하여 개국당시 전제 된 서울지역에 대한 역외재송신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민영방송의 주 수입원인 광고수주 감소 등으로 인해 현재,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개국당시 1,400억의 자본금으로 시작한 방송사가 자본잠식으로 인한 경영중단 위기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OBS 경인방송은 프로그램 자체 편성 비율을 100% 유지하고 있는 지역 방송으로서 역외재송신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2월 구 방송위원회가 승인한 서울지역 1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역외재송신을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08년 4월에 서울지역 1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신청한 OBS 역외재송신 처리를 뚜렷한 이유나 해명 없이 검토기한인 60일을 넘기고 9월까지 연장하면서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자 방송채널을 비워두고 승인을 계속 기다릴 수 없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스스로 신청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OBS 경인방송에 대한 역외재송신 문제가 2009년 10월 7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면 승인 안할 수 없다.” “정식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정식 안건으로 삼아서 심의 하겠다.”고 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11월 18일 OBS가 구 방송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서울지역 1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재승인 심사의사를 통보하고, 2010년 2월 18일까지 지상파방송의 역외재송신 정책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재송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그러나 재송신 중인 1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서울지역 1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송신 여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었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의회는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이 일관성과 신뢰성을 잃고 서울지역 전체에 대한 역외재송신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바이며, 280만 인천시민과 1,1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OBS 경인방송의 역외재송신 승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 결정의 일관성 및 연속성을 유지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고, 방송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방송법에 규정된 지역방송사의 역외재송신 승인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1. 우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공익성을 확보하고, 방송 매체 간의 상호 균형발전과 공정경쟁을 통한 방송경쟁력 확보라는 방송 정책 방향에 따라 서울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OBS** 경인 방송의 역외재송신을 승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 1.

인광역시의회 의원 일동